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공사' 시민 의견 청취

전주시, 교통혼잡·안전 문제 우려 재차 거론에 각계각층 의견 취합 사업 방향 결정키로

전주시가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프로 일시 중지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취합해 사업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시는 16일과 26일 이틀간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1층 이웃사촌방에서 주야로 나눠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프와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프와 관련된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된 배경 및 원인 설명, 시민 의견을 듣는 시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가 사업을 일시 중단키로 한 것은 사업구상단계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차선 속소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와 안전 문제 우려 등이 재차 거론됐기 때

문이다. 이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주의 대동맥인 백제대로의 종합경기장 네거리부터 꽃발정이 네거리까지 약 11km 중 일부 구간이 기존 편도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어들어, 현재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한 백제대로가 출퇴근 시간 등에 더욱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다수인 백제대로의 특성상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문제로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업구상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 멈춤이 시행된 것도 향후 자전거도로와 맞

물려 사고위험과 교통혼잡 유발 가능성이 더 커진 것도 공사를 중단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우선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전주시 자전거정책의 큰 틀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프는 올 연말까지 시비 48억 원을 투입해 백제대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프하는 사업으로, 시가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산림청 주관 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함께 구상했다.

이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인도에 최소 3m 이상의 녹지대를 조성해서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기존 인도의 폭이 좁아 자전거도로와 인도, 녹지가

함께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도 폭이 10m 이상인 명주골네거리부터 전북대학교까지 구간은 기존 2열 따돌지 형태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개설프 가능하지만, 통일광장네거리부터 꽃발정이네거리까지 구간의 경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인도 폭이 5~6m로 상대적으로 좁아 자전거도로를 인도에서 차로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할 바 있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프 추진과정에서의 교통 불편 등으로 시민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프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백제대로 인근 거주 시민은 물론 자전거도로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낳아주신 부모님 찾습니다"

1977년 전주 노송동서 발견 송경순 씨, 독일 입양 주민센터 찾아 도움 요청



1977년 7월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된 송경순 씨가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전주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45년 전 전주시 노송동에서 발견돼 독일로 입양된 제니퍼 씨(한국명 송경순, 45세, 여)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기 위해 지난 7일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녀가 가진 기록은 어릴적 사진과 함께 지난 1977년 7월 16일 전주시 서노송동 617번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뿐이다. 발견된 곳의 현재 도로명 주소로는 완산구 노송여울 1길 사거리 근처이다.

그녀는 이름도 모르는 한 시민이 당시 시청 옆에 위치했던 역전과 출소에 신고하면서 비사별 보육원을 옮겨주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4개월 만에 독일로 입양됐다.

송 씨는 지난 2010년과 2014년도도 부모님을 찾아 전주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부모님을 찾아 세 번째 전주를 방문한 송 씨는 현재 입양된 독일에서 제니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인 남편(변호사)과 함께 딸을 키우

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순 씨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고 싶다"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설사 만나지 못하더라도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송 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송 씨의 가족을 알고 있는 시민은 노송동 주민센터(063-220-1738)로 문의하면 되며, 직접 연락을 희망할 경우에는 송 씨의 전자메일(song.nass@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JennyDraeger)를 이용해 연락할 수 있다. 송 씨가 독일로 출국하는 날씨는 9일이다. /김욱기 기자

'들樂(락)날樂(락) 신나는 전주 신중양시장' 만든다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출범식

전주 신중양시장이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된다.

전주 신중양시장 상인회(회장 반봉현)와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김호은)은 8일 신중양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상인교육장에서 유관기관 및 사업 관계자, 상인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전주 신중양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3년~2024년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사업'에 선정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성화시장으로 변신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상인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민관의 협력을 통해 성공

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통시장 특성화육성사업 중 하나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신중양시장은 2년 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 받게 됐다.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테마를 '들樂(락)날樂(락) 신나는 전주 신중양시장'으로 정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올 때 즐겁고 나갈 때도 기분 좋은 전통시장'으로 만든다는 각오다.

구체적으로 사업단은 △관광연계 문화축제인 '한사발 막걸리축제'와 전통을 가미한 디자인 특화 알뜰체계 개선 등을 통한 특화 환경 구축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인 '시장이 학교다' 프로그램 및 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통한



전주 신중양시장 상인회와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8일 신중양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상인교육장에서 유관기관 및 사업 관계자, 상인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 △상인역량강화 교육과 특화상품기획, 시장 DB 구축,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서비스디자인 개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결제 편의 및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통시장은 단순히 불건을 사고파

는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된 장소로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래에도 전통시장이 경제시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전주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주거취약계층의 지붕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주택을 고쳐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노후주택 개보수 신청 412가구 중 빗물 누수 우려가 있는 39가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장마 시작 전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축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개량 또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지붕이 노후화돼 빗물이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완

산구·덕진구 각 1팀 총 인원 8명의 인력이 투입돼 9월 한 달간 지붕 수리 및 배수로 점검·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는 주거 환경개선 및 주거 안전을 위한 지붕 보수와 더불어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점검 및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수도계량기 출장 시험으로 불신 해소

전주시가 찾아가는 수도계량기 출장 시험을 통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장병호)는 지난 2021년부터 수도계량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시험 결과를 즉시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도계량기 출장 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수도계량기 출장 시험은 특수 시험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단독주택과 소규모 시설을 직접 방문해 고장이 의심되는 수도계량기를 민원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도계량기 출장 시험은 신청부터 검사까지 처리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시민이 시험소까지 방문하는 불편도 없어 편리하다. 또, 간단한 현

장 내부 누수 점검도 함께 제공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민들은 각 가정에서 수도 사용량이 평소 보다 급증할 경우 우선 화장실 변기 고장 및 옥내 누수 여부를 확인한 뒤 수도계량기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계량기 출장 시험 서비스는 구경이 15~25mm인 계량기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누수율이 많고 겨울철 동파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아날로그방식의 수도계량기 3000여 개를 동파에 강하고 내구성과 정밀도가 좋은 전자식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병호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수도계량기에 대한 불신은 해소시키고, 불편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앞서나가는 수도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